



[종합]
전 세계가 주목하는
2월5일 JY선고심
‘운명의 갈림길’
05



Economy

↑ 코스피 2568.54 (+2.08)	↑ 코스닥 2568.54 (+5.37)
↓ 금리 (미국 3년) 2.25 (-0.03)	↑ 환율 (원/달러) 1071.90 (+4.00) (1일)

“삼성처럼 주식 쪼개달라” 황제주에 쏟아진 민원

액면분할의 경제학... “공시때 사서 60일 후 팔아라”

LG생활건강·롯데칠성 등 개인투자자 비중 낮은 종목 거래활성화 위해 필요성 제기 “장기적 매력없어” 지적도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결정하면서 주당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들에 대한 액면분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증시가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주 친화 정책이 강조되면서 ‘황제주 액면분할’ 요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주식이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식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액면분할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장기적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주식전문사이트에는 ‘황제주’로 불리는 종목의 게시판에 “우

《‘황금주’vs‘액면분할 기업’ 일 평균 거래량 비교》

종목	주가(원)	상장주식수(주)	거래량(10일 평균)
액면분할 요구가 큰 기업			
롯데칠성	1,580,000	799,346	2,802
태광산업	1,383,000	1,113,400	1,105
LG생활건강	1,188,000	15,618,197	48,782
오뚜기	769,000	3,440,000	5,271
액면분할 기업			
아모레퍼시픽	300,000	58,458,490	182,276
오리온홀딩스	28,300	62,644,053	107,979
크라온해태홀딩스	16,500	14,847,347	97,299

리도 액면분할 하자”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나눠 발행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유통 물량이 적어 거래량이 적을 때 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 역시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액면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변화의

물결
지난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는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롯데제과, 오리온홀딩스 등이 주식분할을 실행했다. 이들 기업은 주식분할 이후 활발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 2016년 3월 액면분할을 통해 250만원에 육박했던 주가



를 25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분할 전 일 평균 거래량은 약 1000주에 불과했지만 액면분할 이후 일평균 거래량은 (최근 10거래일) 1만 5898주로 급증했다. 이밖에도 액면분할을 통해 몸값을 낮춘 아모레퍼시픽(18만2276주), 오리온홀딩스(10만7979주), 크라운해태홀딩스(9만7299주)의 거래량은 활발하다. 반면 LG생활건강(4만8782주), 롯데칠성

(2802주), 태광산업(1105주) 등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선 종목들의 거래량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액면분할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아모레퍼시픽은 액면분할 전(2014년 말) 14.61% 수준이었던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93% 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오리온홀딩스는 30.04%에서 68.46%로 개인투자자 비중

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LG생활건강(1.61%), 네이비(8.19%) 등을 중심으로 액면분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액면분할 분위기 이어질까? 오는 3월에 있을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액면분할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주주까지 극대화를 위해 황제주 주주들이 액면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액면분할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으로 롯데칠성을 꼽는다.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주 친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 2016년 롯데제과가 액면분할을 통해 주가를 낮춘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칠성의 주가(1일 기준)는 158만원이고, 개인투자자 비중은 18.84%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2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해외서 잘나가는 韓기업

우리나라 제품이 국내에선 대접을 못 받아도, 해외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 무술년 새해에도 수출은 20% 이상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SK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베트남에서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SK는 1조1000억원, 포스코는 7500억원 규모다. (편집자 주)

1 SK·포스코건설, 베트남 2조 플랜트 수주

SK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최초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에 참여한다. SK건설은 에틸렌 플랜트 설비, 포스코건설은 석유화학제품 저장탱크와 입·출하 부두시설 공사를 따냈다. SK건설과 프랑스 테크니프(Tech niph)는 베트남에서 롱손 페트로케미칼(Long Son Petrochemical)이 발주한 20억달러 규모의 에틸렌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의 공사 금액은 각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로 동일

하다. 포스코건설도 이날 베트남 롱손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서 7500억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석유화학단지 내에 총 저장용량 30만톤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저장탱크 28기와 원료제품 이송배관, 원료제품 입출하 부두 및 해양시설 공사로 공사금액은 7500억원 규모다. 롱손 석유화학단지는 롱손 페트로케미칼이 베트남 남부 바리

어붕따우 성(城)의 롱손 섬에 건설하는 베트남 최초의 석유화학단지다. 롱손 페트로케미칼은 태국 최대 민영기업 시암시멘트그룹이 베트남 현지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에틸렌 플랜트를 포함해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플랜트와 기타 유틸리티 설비 등으로 나눠 발주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에틸렌 플랜트를 SK건설이 수주하고, 기타 유틸리티 설비를 포스코건설이 담당한다. 베트남은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내 시설부족으로 원재료와 제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인사하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북 진천군 한화큐셀전천공장을 방문, 일자리 나누기 공동선언식을 앞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오른쪽)과 인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남뉴스

2 1월 수출 22% 증가... 15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수출이 492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입은 45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37억 2000만 달러로 7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금액도 20억5000만 달러로 9.5% 증가하며 14개월 연

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수출 증가는 선진국·개도국 동반 성장세,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세 지속, 유가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96억9000만 달러, 53.4% ↑), 일반기계(44억5000만 달러, 27.8% ↑), 석유화학(42억 달러, 18.4% ↑), 컴퓨터(8억9000만 달러, 38.6% ↑) 등 9개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

학, 컴퓨터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6.5%), 디스플레이(-7.6%), 가전(-8.8%), 무선통신기기(-9.7%)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33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24.5%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아세안, 중남미,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등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수출 비중도 30.1%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5%보다 높아졌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슈퍼 주총데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4월에도 가능

금융위, 주총 활성화 방안 내년부터 12월 결산법인인 4월에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월 말 주총이 집중되던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슈퍼 주총데일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 진행 시간

등에서 보여지듯이 주총이 그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게 시장과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짚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TF는 주총을 4월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한다. 표준 정관을 개정해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개별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도 유도한다. (8면에 계속) /채신희 기자 csh9101@